

개척자들

press@thefrontiers.org



마을의 청년들과 연합하여 550여가구에 전달할 식량꾸러미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 줄 지어 있는 마을의 어른들과 아이들

2021
JAN/FEB
통권182호

누군가

이형우



2021년. 우리 모두 그 누군가가 되어보죠. 복된 새해 되시길. 형우



[표지 이야기]

때로 이런 허망함을 표현할 말이 없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오래 전에 떠난 고국의 기억이 없는 세대가 살고 있는 나야빠라에 닥친 불행으로 인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소유를 모두 잃은 이들이 타고 남은 잔해를 지켜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나마 우리와 함께 일하는 RYC가 발빠르게 그들의 필요를 아주 조금 채울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당장 먹을 식량을 받아가는 소녀들의 얼굴의 미소는 제게 부끄러움을 안깁니다. 더 잃을 것도 없는 이들이 받은 작은 꾸러미가 모든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사는 이들에게 던지는 물음표 같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가져야 행복할까요?”

theFRONTIERS

목차

[카툰] 누군가	이형우	2
[샘터 묵상] 비무장 평화의 섬을 상상한다	류복희	4
[개척자 에세이] 나는 제주에서 무엇을 보았나	윤혜성	7
[그림 이야기] 쿠란타 원시림의 스카이라일	이어진겨레	8
[평화 신학] 강정 실천 신학 2	송강호	10
[아침 이야기] 아체 쓰나미 16주년을 돌아보며 기억하는 것들	난다	12
[긴급구조 결과보고] 나야빠라 난민촌의 화재 구호	최수인	14
[평화공동체] 이상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조정래	18
[공동체 나눔] 로힝아에서 온 편지	로힝아팀	20
[공동체 나눔] 아체에서 온 편지	아체팀	22
[공동체 나눔] 나무숲 세움터 이야기	장성현	24
[공동체 나눔] 제주 & 공평해에서 온 편지	제주팀	26
[살림살이] 11월~12월 재정 보고	조정래	28
[광고] 공동체소식	편집팀	30
[발룬티어 모집 광고] 개척자들과 함께하실 분들을 모십니다	편집팀	32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상상한다

류복희

올해로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16주년이 되었다. 제주가 점점 허울뿐인 평화의 섬이 되어가는 것을 염려했던 사람들이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이란 모임을 만든 지도 어느덧 8주년이 되었다. 1월 27일, 이날을 기억하며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제주를 상상한다.

10년간 강정사거리에서 다양한 평화의 발걸음을 환대했던 ‘평화센터’는, 자리를 옮겨 ‘강정평화센터’를 새로 세웠다. 공간을 옮기더라도 환대와 연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새로 세워진 강정평화센터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히락되지 않은 기억’이라는 6.25 사진 전시회였다.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종전이 아닌 정전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전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2002년 아프간 난민촌을 방문했었다. 9.11 사태 이후 미국이 빈 라덴을 보호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프간을 공격했다. 이미 그때에도 아프간은 고통의 땅이었다. 극우 텔레반의 집권은 여성 인권의 사각지대를 만들었고 러시아와 아프간 전쟁(1979~1989)기간 중 매설된 지뢰는 10년 넘게 아프간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파키스탄 국경을 지나 아프간 카불로 들어오는 큰 길 곳곳에 버려진 탱크들이 있었고, 길 양 옆으로 빨간 칠을 한 돌들이 구간 구간 보였다. 빨간 돌을 표시해 둔 곳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니 들어가지 말라는 표시였다. 그런 표시들이 매일 차량이 지나가는 큰 길가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튼튼한 건물이 요새로 쓰였기 때문에 대체로 벽돌로 세워진 학교들이 군의 요새로 사용되면서 학교 주변은 지뢰밭이 되었다. 큰 길가 옆이나 학교는 일 순위로 지뢰를 제거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매설된 지뢰들이 아직도 제거되지 못하고 10년 넘도록 방치된 상태였다. 돌에 빨간 페인트를 칠한 표시가 전부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돌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페인트도 벗겨지면서 지뢰 사고가 계속 일어났다. 아이들은 빨간 돌이 벗겨진 사이로 물을 길기도 하고 노새에게 풀을 뜯게도 하면서 주위를 잠깐 놓는 새, 어른들은 자신의 밭으로 가거나 빈 땅에 농사를 지으려다가 사고를 당하고 만 것이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목발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만났다. 이 빨간 돌들은 언제쯤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까? 우리 팀은 작은 마을 중학교 주변의 지뢰를 제거하고 학교를 재건했다. 그리고 남녀공학 학교로 문을 열어 마을에 기증하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그 땅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곳의 끝나지 않은 전쟁의 소식을 아직까지 듣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70년동안 정전상태로 남아 있다. 잠깐 봄날이 오는 가 싶었는데,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 단계적 군축 약속은 버려지고 남한의 군사력은 2017년 12위라고 하던 것을 2020년에는 6위로 올려 놓았다. 이에 북한은 배신감으로 모든 소통의 길을 끊어 버리고 뒤흔친 군사력을 전술 핵무기 개발이라는 강수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민족 상잔의 아픔을 너무나 깊이 기억하고 있다. 태극기부대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미국에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인다. 미국이 없으면 우리가 망하는 줄로 생각 하신다. 북한이라면 아직도 치를 떠신다. 국방부도 2006년 한미연합훈련을 한국군 주도로 했을 때,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당장 전작권을 넘겨줘도 군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며 전작권 환수를 거절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1809050407170#ODKU> 프레시안) 자주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 지휘를 받겠다고 한다. 우리 만으로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전쟁이 그렇게 두렵다면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힘을 더 쏟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수 조원을 쓰는 것이 전쟁의 위험 속으로 우리 국민을 끌고 들어가는 일이 될 수 있다. 정말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면 평화를 위한 노력도 전쟁을 준비하는 노력만큼 해야 한다. 미국에 상.하원의원들을 설득할 로비스트들을 보내고, 이미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중견 국가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우리 나라의 위상을 잘 알려 공포증(포비아)에서 괴로워하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시도하고, 남.북간의 교류를 민.관 차원에서 더욱 활발히 만들어 내는 등, 구체적인 평화를 위한 행동들을 위해 국방비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안보를 더 보장할 것 같다.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수장이었던 김구 선생님은 소원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합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2016년 테러 방지법과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을 했던 국회의원들을 기억한다.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열심히 싸워 주고 있다는 것에 감동했다. 그들의 절절한 호소에 역시 밤새 응원했다. 무력이 아닌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꿈꾸는 정치인들이 많다는 것이 든든했다.

나는 제주도에서 무엇을 보았나?

윤혜성

이제 대한민국은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정도의 부력도 강력도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엔 이 추운 겨울 따뜻한 머리 돌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오늘 내일 직장을 잃을까 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많고, 목숨을 걸고 눈발을 헤치고 배달을 해야 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 생명을 담보하고 단식과 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김구 선생님이 꿈꾸었던 높은 문화의 힘이 없기 때문이다. 충분한 부가 있음에도 부를 움켜쥐고 나누지 않겠다는 탐심, 생명에 대한 무감각한 감수성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벼랑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풀어야 할 숙제다. 그리고 우리 나라 정치의 가장 큰 숙제 하나는 평화다.

한반도를 비핵화 지역으로 만들어 평화 통일로 가는 길에 제주는 너무나 중요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제주가 2005년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것은 하루 아침에 그냥 선포된 것이 아니다. 1991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제주는 1996년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터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 같은 해 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 회담,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 회담이 있었다. 이렇듯 한반도의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상들과의 만남이 성사되고 제주 평화 포럼 등, 학술회는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되도록 도왔다. 그런데 ‘평화의 섬’으로 선포되지 16년이 되고 있는 제주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강정에는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해군 진입도로가 들어서며 서귀포시 주민들의 식수인 강정천을 오염시키고, 공군기지로 활용될 것이라고 의심받는 제2공항은 10개의 오름을 자르고 100개가 넘는 숲골을 막아 만들려고 한다. ‘평화의 섬’ 제주가 점점 생명이 아닌 죽음의 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평화를 담보하지 않고는 유네스코 3관왕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제주가 지켜 질 수 없다. 2003년 제주평화포럼에 참석한 국내외의 석학들이 모여서 제주가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의 첫째가 제주가 비무장 중립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쉬운 성취가 아니다. 그래서 당장 임기안에 성과를 내야 하는 정치가들은 이것이 길이 아니라고 포기해 버렸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높은 문화의 힘이 나라의 대세가 되는 나라! 죽음을 싫어하고 생명을 소중히 다룰 줄 아는 나라! 누구나 살아 보고 싶은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꾸며 거대한 국가폭력과 싸우는 이들이 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복지는 그들의 피와 눈물과 땀방울의 열매다.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일은 미국의 패권에 이용당하는 군사기지화가 되는 제주를 거절하고 제주의 미래 운명뿐 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와 동북아의 평화 미래가 달린 역사적인 과업이다.

theFRONTIERS

‘놀러가는 곳, 비행기 탈 수 있는 기회, 바다, 해산물, 굴,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은 섬, 자연이 아름다운 섬, 관광의 섬, 언제 한번 들어본 평화의 섬...’

1년 전만해도 나는 제주도를 생각할 때 이런 것이 떠올랐다. 제주도를 생각하면 설레고 기다려지는 곳, 한 번 더 가서 놀고 싶은 곳, 큰 맘 먹고 가는 곳이었다. 그 설렘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지금 돌이켜 보면 내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가에 의해 심겨진 제주도, 자본 속 쳇바퀴에 갇힌 이들을 현혹하기 위한 제주도였다. 1년을 지낸 지금, 내가 본 제주도를 잠깐 생각해본다.

강정에서 바라본 바다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그저 서있기만 해도 자연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기분이었다. 제주도에 살면서 보게 된 자연은 경이로움이다. 섬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대한 한라산과 그 주위로 뿔어 나오는 푸른 숲들, 끝없는 바다가 있다. 원시림을 가진 곳자왓은 보물주머니 같았고, 바다 속 연산호군락은 바다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수면을 박차며 뛰어오르는 돌고래는 자유가 무엇임을 알려주고, 강한 바람과 태풍은 자연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든다. 관광객은 결코 볼 수 없는 자연이다. 자연을 소유하려는 욕망은 자연의 진정한 모습을 못 보게 한다. 제주도에서 자연이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연이 인간을 품어주고 있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아름다울 때 대가를 치른다. 제주도정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자본과 연결시켰다. 그 결과 수많은 난개발로 제주도의 자연은 사라지고 있다. 절대보존지역은 풀리고 평화의 가치는 지역개발로 변질되었다. 900여개였던 용천수가 660여개로 줄었고, 곳자왓은 무분별하게 밀리며 영어교육도시와 대형 리조트가 들어섰다. 해군기지로 구럼비는 묻히고 연산호군락이 사라졌다. 제2공항이 건설되면 오름이 10여개 잘려 나간다. 세련된 건물들이 지저분하게 세워지고 숲은 잘리고 바다는 비어져간다.

자연과 함께 이전엔 보지 못했던 제주도만의 역사도 보았다. 일제의 수탈과 4.3의 아픔, 해군기지반대운동, 제2공항 반대운동, 여러 난개발과 저항의 역사들이다. 모진 역사 속에서도 도둑, 거지, 대문이 없는 3무 정신을 꽃피운 마을공동체도 보았다. 애석하게도 자본으로 뒤덮인 제주도는 3무 정신과 공동체가 남아있는지 의문이 든다.

오늘도 하얀 눈을 입은 한라산을 보았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앞날을 생각한다.

‘있는 그대로의 제주도, 자연의 다양함과 풍성함을 닮은 공동체, 과거의 아픔을 회복한 사회, 개발과 변영이라는 허울을 벗고 지킨 평화, 되살아난 3무정신, 비무장 세계평화의 섬...’

이런 제주도를 꼭 보고싶다.

theFRONTIERS

쿠란다 원시림의 스카이 레일

이어진겨레

지난 연말에 열흘의 휴가를 얻었습니다. 농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이 그리웠던 터라 그곳 근처에 있는 휴양도시 케언즈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농장에 머무를 때에는 몸이 지쳐 케언즈를 둘러볼 힘과 의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참에 쉬기로 작정하고 케언즈를 둘러보니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다고요. 1억 5천만 년 동안 유지되었다는 원시림 쿠란다 국립공원,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 폭포를 담은 바론 강. 구경하다 보니 열흘에 걸친 휴가가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청림은 그 중에서도 쿠란다 원시림을 지나는 스카이 레일을 오래 전부터 타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스카이 레일을 타는 날 아침에는 간밤에 스카이 레일을 타는 꿈을 꾸었다며 난생 처음 소풍 가는 아이처럼 행복해했어요.

쿠란다 원시림을 7.5 킬로미터로 가로지르는 스카이라일은 설치하고 운영하기까지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 애쓴 사례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원시림을 지키려는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의사를 주정부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재 하나하나를 헬기로 옮겨 가며 레일웨이의 밑동을 나무 사이 사이에 세웠습니다. 원시림 안으로 들어가는 수목양용차 또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LPG차량으로 개조했다고 합니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 지켜낸 원시림은 태고로 간직한 듯 합니다. 15미터가 넘는 고대의 고사리와 원주민들이 목마를 때 잘라 마셨다는 물이 팔팔 나오는 냉폭, 밑동에서 내린 뿌리가 아닌 가지에서 뿌리를 내리는 나무 등 진귀한 자연을 만났습니다. 숲을 거니는 동안 이곳에서 촬영했다는 영화 아바타를 떠올렸습니다. 영화를 볼 때 느꼈던 신비함이 실물로 눈 앞에 펼쳐지니 멍하니 감탄할 뿐이었어요.

호주가 모든 것을 평화로 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소수자로 차별 받는 원주민들과 비백인들이 존재합니다. 숲한 동물들이 국립공원이 아닌 곳에서는 로드킬로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쿠란다와 같은 노력과 결과를 볼 때면 한국의 사례와 겹쳐져 오래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폭력은 비겁하다. 폭력은 약해 보이는 것으로 향하기 때문이다.'라는 글귀를 읽었습니다. 원시림을 지나며 제주의 비자림로 확장공사와 지리산 케이블카 등 개발을 위한 비겁함이 더욱 쓰게 다가옵니다.



강정 실천 신학 2

송강호

신학의 분야를 분류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성서 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으로 나누는 것이다. 여기서 실천신학은 일종의 응용신학으로 성서신학과 역사, 조직신학의 연구결과들을 현 상황에 적용하는 신학으로 간주되었다. 여기에는 예배학, 기독교 교육, 목회학, 목회 상담학, 디아코니아, 경우에 따라 선교학을 포함하였다. 신앙의 실천을 주 내용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다른 신학의 내용을 응용한다는 점에서 부가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다.

나는 이런 실천신학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서 신학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말씀에 대한 연구에 있다. 나는 실천신학의 중요성은 적용에 있다기 보다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를 우리 현재 살아 있는 인간이 성령의 감동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을 지나간 시대에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확증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활동의 무대요, 그 현장이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을 갖고 역사 하신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명령과 분부를 순종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 무고한 시민의 이마에 총을 겨눈 군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가련한 힘없는 시민의 표정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이 명령을 순종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는 총을 들고 있는 군인의 몫이다. 오랜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집과 농지를 다 잃어버린 가난한 농부가 부르짖는 ‘전쟁을 그치고 무기들을 녹여 농기구를 만들라’는 소리에서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목시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실천신학은 오늘날도 역사의 현장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대한 행위를 증언하고 그 역사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일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동참시키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진행되고 경험되는 사건이다. 이것은 불의한 현장에서 정의가 세워지고 불화한 곳에서 평화가 이뤄지며 억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기쁨이 만들어지는 거룩한 사건이다. 이렇게 폭력과 강압으로 억울하게 고통받는 부당하고 불의한 현실에서 상처받고 억눌린 민중들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신원 하신다. 그러므로 실천신학의 현장은 바로 그 고통받는 민중들의 현장이다.

이점에서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은 일종의 실천신학이다. 실제(Praxis)에서 출발한 신학들이요 그 현장속에서 말씀을 재해석하고 교회역사도 재구성했으며 교회의 현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재 설정했다. 성서신학은 실천신학의 외연을 규제하며 실천신학은 성서 신학을 활성화한다. 인간의 경험은 주관적이고 객관성을 띄기가 어려우므로 성서신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고문서의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해석의 틀을 깨고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 하는 현장성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내가 신학생 시절 배웠던 실천신학은 언제나 응용과 적용의 기술들이었다. 거기에는 어떤 원천성(Originality)이 없었다. 부가되고 파생된 신학일 뿐이었다. 그러나 내가 분쟁과 갈등으로 가족이 죽고 집이 불타버린 난민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자각을 갖게 되었고 바로 이 인식과 경험에서 실천신학은 출발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 실천신학의 원천성(Originality)이 응용과 적용 신학으로서의 실천신학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고 더 중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신학이 온전성과 역동성(Dinamics)과 활력(Vitality)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 국립수도원에서

theFRONTIERS

평화의
섬

개혁자들 7월

theFRONTIERS

아체 쓰나미 16주년을 돌아보며 기억하는 것들

Nanda Rahmad



wisata bot atas rumah (Foto: Ario) 집위에 올라 간 보트(쓰나미 기억 공간)

2004년 아체를 황폐화시킨 쓰나미 비극은 대부분의 지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 재해 중 하나로 꼽히는 재난은 여전히 끔찍한 재난에서 살아남은 람폴로 마을 주민인 Wak Kolak에게도 예외 없이 슬픔을 남깁니다. 람폴로 마을의 집 지붕에 있는 배는 쓰나미 기억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왁 콜락 부인은 이제 75세가 되었습니다.

부인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람폴로 항구에서 평상시처럼 장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상황을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너무 크고 길어서 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야 끝이 날 것 같았지. 그렇게 8분을 흔들리다가 지진이 멈추었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 방향에서 두 번의 폭발 소리가 들려왔고 세상이 너무 조용해졌어. 그리고 잠시 후 바닷물이 물러가는 것을 보았지. 그리곤 몇 분 후 바다 방향에서 굴러오는 매우 큰 진흙처럼 검은 파도가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어. 그 순간 사람들이 소리쳤지.” “바다가 떠오르고 있다!”

12 / 개척자들

부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 버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코란에 기록된 종말이구나. 부인은 더 이상 자신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신을 기억하며 너무 가까이 다가온 죽음을 맞이하려고 손을 가슴에 얹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의 팔을 붙들고 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근처에 살고 있는 교사로 이층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피신해 온 59명의 사람들은 이층으로 피신했고 그때 커다란 어선이 이 집 위로 충돌했습니다. 이집에 피신했던 사람들은 모두 이 어선으로 올라 가서 물이 줄어 들고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살아 남았습니다. 부인도 그 중 한 분이었습니다.

Mak Nong이라는 분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막농과 그 자녀들은 코코넛 나무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서 막농과 아이들은 픽업 차를 탔습니다. 그러나 물의 속도가 트럭의 속도보다 더 빨랐습니다. 트럭이 전복되면서 물속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구르면서 엄마와 아이들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물속에서 굴러가다가 그녀는 코코넛 나무 사이에 걸렸고 아이들도 나무 꼭대기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아이들은 코코넛 나무에 걸려 물이 빠질 때를 기다릴 수 있었고 남편이 그들을 찾아 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어머니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시며 저에게 부모가 제실 때 잘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작은 항구 마을에서만 사망자 982명, 실종자 450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아체주에서만 17만명이 사망했습니다. 쓰나미의 거대한 재난은 아체의 상황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도네시아 주정부와 아체 정부가 더 이상 무력분쟁을 하지 않기로 평화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이 평화 협정은 아체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었고 아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아체 주만 특별히 이슬람법이 지역법으로 통용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아체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체는 아프고 또 다른 위험인 난개발로 염려가 큼니다. 계속해서 농지가 팜나무 농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Nanda와 인터뷰 중인 Wak Kolak (Photo: Ario)

팜나무 농장은 물을 고갈시키며 사람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자연 앞에 우리는 작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신앙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한 신앙심이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잘 쓰여 지길 바래 봅니다.

theFRONTIERS

개척자들 / 13

나야빠라 난민촌의 화재 구호

최수인

2021년 1월 14일 방글라데시의 콕스 바자르 테크나프에 위치한 나야빠라 난민촌에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해 550개 이상의 대피소가 파괴되었습니다. 불은 난민촌에서 14일 오전 0시 (현지 시간 오전 02시 15분) 직후 발생해 대피소 550여 곳과 상가 150여 곳을 전소시켰습니다. 주민센터도 파괴되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로힝야족 약 3,500명은 한겨울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속에서 주거지와 소지품을 잃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화재는 소방관, 자원봉사자, 난민 자원봉사자, 청년 단체에 의해 몇 시간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비정부기구, 비영리단체들은 목요일 아침 일찍부터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UNHCR에서 대나무, 폴리에틸렌 끈을 얻었고, 그 재료들로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시로 텐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화재로 재산과 소지품을 모두 잃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을의 마지(관리감독인)와 함께 상의하여 마을의 청년들과 함께 550여개의 식량 패키지를 배분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유, 감자, 양파, 설탕, 국수, 비스킷, 소금, 기름, 달, 마른 생선, 토스트 비스킷과 같은 기본식량 이외의 특별한 기호식품들을 받을 수 있어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가련한 로힝야민족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숨이 다 할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한 지지를 거두지 말아주세요. 감사드립니다. - RYC 멤버 무하마드 아민-

theFRONTIERS

모금을 시작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마음들이 모였고,

빠르게 계획했던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긴급한 요청에 응답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목표금액이었던 5,000,000원은 현재 목표치의 약 260%를 넘겨 추가 달성되었습니다.

식량배급을 위해 사용된 금액 이외의 남은 후원금은

목적 후원금으로 로힝야 난민촌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조정래

1월 초 중순이 열결에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도소의 브라덜 송을 면회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는 몇몇 분들이 줌으로 기도회를 여셨고 제주팀은 4박5일 동안의 회의를 마치고 육지에서의 일정을 소화하던 중이어서 저 혼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1심 때와는 다르게 2심 재판부에는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모으자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전했더니 참석하셨던 목사님께서 송강호 박사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서명 요청을 위한 약간의 소개 글을 쓰셨고 아름아름 탄원서 요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육의 봄’에 계신 송인수 선생님께서 제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현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물으시고는 두 트랙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환경운동을 하시던 최병성 목사님을 위한 탄원서 조직의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 줄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습니다. 개척자들은 원래 작은 단체여서 큰 단체들이 큰 길을 따라 큰 차가 갈 수 있는 곳으로 활동 범위를 제한할 때, 교통이 좋지 않아 걸어서 가야하는 길을 마다 않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름의 정체성으로 내면화 했기 때문에 ‘크고, 많은’ 것에 대한 낯섦이 있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시작된 탄원서 운동의 2막은 성서한국과 기운실, 좋은 교사 등의 단체에서 실무를 맡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상상 이상의 시너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몇 차례의 줌 회의를 거쳐 문안을 작성하고 수정해서 확정된 탄원서 요청이 1월 11일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3일이 지난 13일 밤에 다시 줌회의를 했을 때, 3,800명의 서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만 명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기서명자들에게 문자로 주위의 지인들과 단톡방에 알려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후 서명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져 총 열흘만에 15,584명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줌회의로 모이던 단톡방에서는 기쁨의 메시지로 서로를 격려했고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참여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와 그분들의 놀라운 멘트들로 감격을 나눴습니다. 그중 제 눈에 잡힌 며느리와 송실대 김희권교수님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어떤 분의 멘트를 나누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 송강호 박사님의 며느리입니다.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며 때로 먼발치에서만 보였던 분을 가족으로 몇 년간 알아나가며 사실 의외였던 것은 그 분이 열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단단한 믿음을 가진 분이지만 어떤 이야기도, 본인의 생각과 완전히 배치되는 입장이라도 일단 멈춰 상대가 하고자 하는 말을 최대한 그 자체로 이해하고자 하고 궁금해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는 가족들 앞에서도 일관되었기에 오랜 고된 활동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어른입니다. 그분을 사람으로 알게 되며 저는 아버님이 추구하는 평화라는 가치 또한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칠지언정, 부러 질서를 파괴하거나 힘으로 맞서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평화를 추구하고자 진심 어린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신념을 위해 사는 사람은 당장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그 사회를 다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또한 이런 사람을 포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깥 사람은 일기에 제가 전한 며느리의 서명 멘트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썼더군요.

김희권교수님은 “재판장님, 연일 격무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막스 베버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적 평화추구는 현실정치의 논리에서 보면 급진적으로 보이고 실정법의 경계를 넘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더 예민한 평화 감수성, 생태적 감수성을 가졌던 송강호는 산상수훈의 급진적 평화를 추구하려다가 의도하지 않게 실정법을 어긴 죄인이 되었으나 그의 행위는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 어느 범죄자들의 행위와 너무 다른 행위입니다. 법의 이상보다 더 고귀한 기독교적 평화를 추구하다가 생긴 위법임을 해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왕노릇할 때 송강호의 급진적 평화추구가 재평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판장님, 부디 역사가 기억하는 자애롭고 균형감 넘치는 판결을 내려주셔서 평화를 위한 이 땅의 선구적 평화운동가들을 격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쓰셔서 저희 부부는 과분한 평가에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제 마음을 건드린 분의 글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해군기지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얘기에 저도 조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래야만 할까요. 지금 알 수 없는 내일의 전쟁에 대비해야 하기에 어제까지 그곳에 살던 이들은 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그 과정에서 폭력에 맞서는 운동가는 수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가 현행법을 위반하였기에 기소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맞서고자 하였던 것은 국가라기보다 국가의 언어로, 질서로, 힘으로 시민들과 자연에 강요되었던 폭력이었음도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의 전쟁을 멈출 수는 없다 하여도 전쟁 없는 세상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송강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많은 ‘송강호’가 필요하다는 대목을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잊혀 가는 외로운 싸움을 하는 바깥 사람의 걸음을 같이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나이 들어가는 그가 들으면 역시 눈물이 날만큼 공감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 지인들과 그들의 지인들로 이어진 탄원서 릴레이의 맥박이 새해의 첫 시작을 힘차게 뛰게 하는 정말 이상하고 아름다운 두근거림이어서 여러분의 새해에도 힘차게 이어지길 바라며 이렇게 나눠봅니다.

세상은 더 나은 삶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며 점점 더 살벌해지고 국가 간의 신뢰도 무너지고 있지만 내가 잘 되어(立身)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싶어하는 ‘홍익인간’이라는 깊은 무의식이 새겨진 한국인의 DNA로 인해 이 작은 땅 그나마도 반쪽인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세계에 끼치는 영향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크고 긍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기운으로 올해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theFRONTIERS



제출을 위해 출력한 탄원서



제본한 탄원서

ROHINGYA

에서 온 편지



겨울옷 선물



겨울옷 선물

지난 12월, 1월 로HING야난민촌에서 온 소식을 전합니다.

1. 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소식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RTS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번 1월 둘째 주부터 이전 소식에서 말씀드린 일정에 따라 우리 학교는 3개의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수학 영어 미얀마어에 과학



겨울옷을 구입하러 간 교사 비랄

지리 역사과목을 추가한 것 입니다. 이로써 우리 RTS학교는 미얀마 정규

교육과정을 완전히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학교는 잘 운영 되어가고 있고, 학생들은 그 세 과목이 신설 후에 매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모하메드 아노스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아노스는 3일 동안 계속해서 질병으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들은 학교의 규칙에 따라 학생의 치료를 돕기위해 그에게 1,000 TK를 지원하였습니다. 아노스는 RTS학생이자 저의 막내 동생이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석자인 학생의 이름은 함사나입니다. 함사나는 다른 난민캠프에 계신 숙모의 집에 2일간 방문했다고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모두가 수업에 참석했고 건강 상태도 좋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후원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더송과 사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항상 나

에게 그들의 소식에 대해 묻고 그들에게 안부를 전해주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 RTS 모하메드 비랄

2. RTL

여러분께 우리 학교 소식을 전하게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2021년 1월 1일 성공적으로 RTL중학교를 시작했고 학교교칙에따라 평화롭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목요일마다 우리는 자유토론회를 열었고 부드러운빵과 커피를 간식으로 제공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학교가 미얀마 정규과목을 모두 가르치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이 근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학교는 지역사회에 영감을 주고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으로 우리세대는 밝고 우리 공동체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 RTL 누르까말



RTL 중학교 입학식



RTL 중학교 입학식



긴장되고 떨리는 첫 수업

20 / 개척자들

3. RYC

올해부터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RYC지원가정을 4가정 더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총 20가정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캠페인 예산도 늘어 더 많은 사람에게 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지원하게 된 4가정을 소개합니다.

1. 미망인 가족 가족구성원 5명 : 로히마 카툰

이 가족은 가장 어려운 이웃입니다. 다섯 식구 중 남자 둘 여자 셋이 있는데, 가장인 로히마는 일상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있습니다, 로히마가 살고있는 마을의 마지(마을관리인)들은 이 가정에 더없이 방문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가족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돕기로 선택했을 때, 가족들은 매우 행복해했으며 기부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 취약계열 가족구성원 3명 : 굴 바누

우리가 새로 선정한 이 가족은 가장 어려운 가족입니다. 바누의 남편은 미얀마에서 사망했고, 그녀는 현재 방글라데시 임시 난민 캠프 콕스의 바자르 나야빠라 할랄 가든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3명이고 3명모두 여성입니다. 그 누구도 이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가족을 방문했고, 그들이 처한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3. 미망인 가족 가족 구성원 4명 : 누르 바하르

이 가족은 가난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에는 생계를 위해 수입을 벌어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바하르는 현재 남편과 5년 전부터 이혼하여 같이 살지않습니다. 우리는 이 가족을 여러 번 방문한 끝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4. 미망인 가족 구성원 2명. 아누아라 베굼

이 집도 어려운 가정입니다. 베굼의 남편은 작년에 오랜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지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 RYC 무하마드 아민

theFRONTIERS



RYC 의료캠페인 진행

개척자들 / 21

ACEH

에서 온 편지

아체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R 멤버 대부분이 사라 baru 마을에서 2020 년 송년의 날을 보냈습니다. Uma, Rizka, Mina, Rian, Fitri, Wali, Romi, Salam 그리고 저였습니다. Munt, Hilma 및 Andri는 3R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Sarah Baru에서 저희는 도서관 독립공간을 만드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마을 촌장 (Pak kecil)님의 지도하에 이 일들은 진행될 것입니다.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촌장님으로 인해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는 목재를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지 지역의 목재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나누어 주셨고 이 지역의 전통가옥 방식인 "Kluet '처럼 만들기를 희망하셨습니다.

Romi와 저는 또한 Sarah Baru 사람들과 흥미로운 대화를 했습니다. 이곳은 지역규칙인 "카논"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마을에서도 이러한 마을 규칙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통에 대한 관심들이 사라지고 자본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따라 마음들이 끌리니까요. 그런데 이곳은 마을 규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허가없이 나무를 자르면 몇 가지 벌칙들이 행해집니다. 또한 젊은 마을 사람들은 마을 밖의 사람들이 주로 행하는 불법 벌목을 막기 위해 숲을 지키는 "산림 자치경찰"에 자원하여 봉사합니다. 이렇게 온 마을이 그들의 터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Romi도 저도 이렇게 숲을 지켜내고 있는 이들이 정말 신기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3R에서는 헌 티셔츠로 토트 백을 만들었습니다. 보다 창의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 사이클링 활동 같았습니다. Munt, Hilma 및 Rian이 멋지게 진행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환경 캠페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3R 사회적 기업을 위한 3 가지 제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제품들은 또한 3R 보드 매거진의 홍보 면을 장식했습니다. 저희는 특히 3R 엔터프라이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자립??^^ 글썄요 그곳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1월 10일, 3R은 드디어 소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Greevi (Stand for Green Village)라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것입니다. 3R은 쓰레기 제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비닐 플라스틱은 패트병에 잘게 썰어 넣어 플라스틱 블록을 만들고 있고, 음식물 찌꺼기는 오가닉 거름을 만들고 병과 캔은 구별하여 재활용 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낡은 옷을 가방으로, 기저귀를 재활용해 만든 화분을, 재사용 가능한 천 생리대를 만들어 상품을 올려 놓으면 주문을 받고 배송합니다. 이번주에 Nada, Yuri, Novi(평화 캠프 참가자들)도 그것을 만드는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Instagram @greevICollection을 통해 저희 상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Andri는 요가와 함께 종이로 재활용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 인용 마스크와 과일모양 마스크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Andri는 Anjas에게서 신발 선반을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스스로 만들어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본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날씨가 요즘은 정말 자주 변덕을 부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들 열심을 내어주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역시 계속해서 Covid-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서로에게 주위를 상기시켜 주는 일도 잊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역시 계속해서 생리대와 업 사이클 백을 만들고 재활용 종이를 이용해 여러가지를 만들기 위해 바쁩니다.

Mun, Andri 그리고 Hilma는 까주 도서관에 일주일에 2번 방문하여 사서 선생님을 돕고 있습니다. 3R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 작품들을 아이들과 만들면서 자연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이번주에는 보드 게임을 큰 2절지에 만들어 아이들과 놀이를 통해서 경쟁이 아닌 화합을 배우면서 함께 즐겁습니다. 지난1월15일 인도네시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합니다. 술라웨시에 다시 강한 지진이 발생해 최소 81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남부 칼리만탄에서는 큰 홍수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 로힝야 캠프에서 불이 나서 실터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작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술라웨시의 긴급구호를 하기 위해 후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연대하는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아체에서 힘을 보냅니다!



천 생리대 만들기



재생 종이 만들기



술라베시 지진 긴급구호 후원요청



Sarah Baru 마을 청소



도서 캠페인



야외 수업



Greevi Open



홍수 긴급 구호에 참여한 3R 멤버

NAMOOSOOP

나무숲 이야기

장성현

나무숲세움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면서 계획된 외부 활동들을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숲세움터 짱똥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지나간 2020년 다들 무탈하셨는지요. 저희는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연말에는 그 동안 오프라인에서 진행했던 수업, 방학&졸업식, 열매마당 등의 행사를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많이 채웠는데요. 막막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돌아보니 아이들과 교사 모두 색다른 즐거움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기행

11월 23-25일 역사기행을 다녀왔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고, 안전한 곳들로 다녀오는 일정을 짜느라 센터에서 숙박을 진행하며 양평과 멀지 않은 박물관, 역사 명소들을 다녀왔습니다.

첫째날에는 북악산 개방코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전태일 기념동상, 평화시장의 현 책방 거리, 동묘 시장 등,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담고 있는 장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둘째날에는 안산으로 가서 수업에서 배웠던 단원 김홍도의 작품을 관람하고, 전태일 기념관을 갔습니다. 두 곳 모두 열정적인 가이드 분의 설명 덕분에 아이들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것 보다 훨씬 풍성하고 입체적인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전태일 기념관에서는 직접 아이들이 그 시대 노동자들의 작업장을 재현한 곳에 들어가 보고, 그들이 작성했었던 노동 환경 실태조사 설문지를 작성해 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대전 오월드를 가서 여러 놀이기구를 원 없이 타고, 다양한 동물들도 관람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사기행을 통해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아이들 안에 깊이있게 기억되고, 느꼈던 여러 감정과 깨달은 지점이 아이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길 바랍니다.

졸업&안녕식

지민이의 졸업, 시환이와 슬이의 안녕식 행사를 화상 회의(ZOOM)로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사들 모두 처음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행사로 적지 않게 긴장하며 준비했지만, 다행히 본 행사는 큰 방송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감동이 전달될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공유되는 영상들을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님들이 모두 몰입해서 보면서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는 귀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지민이와 슬이, 시환아! 우리가 항상 응원하고 축복할게!

24 / 개척자들



졸업& 안녕식

열매마당

열매마당도 마찬가지로 각 수업마다 한 해 동안 배운 내용들을 영상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준비중입니다. 노래, 연주, 인형극, 작품 제작, 과학 실험, 암송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영상들이 이 글을 쓰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모두 업로드가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진행해왔던 열매마당의 뿌듯함과 감동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온라인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겨울아 놀자

예정된 일정 직전까지 진행 여부, 방식에 대한 회의를 통해 기존의 인원, 일정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14명의 아이들을 2팀으로 나눠서 각 팀당 이틀 씩, 총 4일(1월 5-8일)을 진행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아이들이 재미있어할지 걱정을 많이 했지만, 많은 아이들로 북적거렸던 지난 겨울아 놀자와 다르게 도란도란, 웅기중기 모인 작은 모임이 주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어색함이 빠르게 풀어지면서 정 들고, 서로를 따뜻하게 챙겨주는 순간들이 많았고, 지켜보는 선생님들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역대급 추위와 눈이 많이 내린 날씨도 아이들에게는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이렇게 2020년 세움터의 한 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진 2021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아이들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마음껏 넓은 세상을 온몸으로 배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theFRONTIERS



열매 마당



열매 마당



겨울아 놀자

개척자들 / 25

JEJU & 공평해

에서 온 편지



제2공항 반대 거리 선전 모임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로 오염된 강정천



난징대학살 추모제



난징대학살 추모제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모든 이들이 평화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제주도에서 있었던 소식입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슈 중 가장 뜨겁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제2공항입니다. 현재 성산 일대에 제2공항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결과 많은 도민이 제2공항을 반대하고 있습니

다. 개척자들도 제2공항을 반대합니다. 난개발로 시름하고 있는 제주도를 더 병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름을 깎고 숨골을 막고 철새들과 멸종위기종들을 내 쫓으며 제2공항을 건설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2공항은 군사기지로 사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군기지와 함께 공군기지를 세우면 제주도는 말 그대로 항공모함이 됩니다. 지금 건조하려는 경향공모함이나 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오기 좋은 입지가 완성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군사기지가 정말 평화를 가져올까요?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분쟁을 촉발하는 길로 걸어가는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개척자들도 11월에 제2공항 반대를 위한 선전전에 동참했습니다. 12월 언론 조사 전에 제주도 전역으로 선전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안덕면과 대정읍쪽으로 2번의 선전전에 참여했습니다.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아닌 평화와 갈등 완화를 위한 평화센터가 세워지고 운영되길 바랍니다.

12월 13일에는 난징대학살 83주년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난징대학살을 추모한다는 것이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시절 제주도는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된 기착지였습니다. 중국을 폭격하고 돌아오던 비행기가 일본까지 가지 못하기에 제주도에 착륙했습니다. 난징대학살 당시에 제주도 알뜨르 비행장에서 뜬 전투기가 난징을 폭격하고 돌아왔습니다. 제주도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섬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주도가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다시는 이런 역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 추모제를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중국과 일본에서 참석하지 못했지만 연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외 여러 곳에서 함께 모여 난징대학살을 기억하며 지금의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고 다짐하였습니다.



12월 14일부터 22일까지 개척자들 멤버는 양평에 모였습니다. 평소에 제주도 강정에서 활동하다가 이번에 연례회의를 위해 양평 샘터로 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독일 발원티어도 없고, 브라더송은 옥중에 계셔서 4명의 멤버만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한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생각하면서 많은 안건을 나눴습니다. 연례회의를 통해 개척자들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건 믿고 후원해주는 후원자분들이 있었다는 것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4명에서 조출한 연례회의였지만 가슴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정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12월 23일부터 일상평화활동인 생명평화백배, 인간띠잇기 등 잠시 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코로나가 심하지 않았는데 외부에서 찾아오는 인원들로 코로나 확진이 갑자기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개척자들과 함께 지내는 분들 중에도 양성도 나오면서 1월 1일 새해부터 자가격리를 2주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가격리하는 동안 코로나에 대해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추위와 코로나로 움츠러드는 시기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에 힘겨워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코로나로 드러나는 문제와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브라더송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현재 브라더송, 사하자, 아샤, 하피는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브라더송은 1심에서 징역 2년이라는 과도한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브라더송은 현재 2020년 3월 30일부터 계속해서 법정구속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1월 11일부터 구글시트를 활용한 송강호 석방을 위한 탄원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를 위해 성서한국, 기윤실, 좋은교사 등에서 실무를 맡아 주시며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1만5천여명이 탄원에 서명했습니다. 탄원에세지도 너무나 감동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필탄원서도 받았합니다. 진심을 담은 탄원서를 받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보내 주신 응원과 관심에 2심에는 꼭 석방되리라는 희망을 느낍니다. 1월 27일 11시 10분에 2심 3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CCTV 증거자료 채택을 놓고 검찰측 증인 4명을 불러 질의하였습니다. 1시간 40분정도 긴 시간 공방을 다투었습니다. 다음 공판은 2월 17일 11시에 있습니다. 검찰측 증인 1명과 피고인질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루 빨리 브라더송이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브라더송 결개 그림 설치



개척자들 연례회의



자가격기 동안 드린 중예배

2020 개척자들 살림살이

11월에 개척자들과 함께하신 후원자님

[개인]	
강민혁, 강원옥, 고애신, 고혜신, 김기수/조명희, 김기한, 김나경, 김명철, 김미숙, 김미옥, 김백재/이정애, 김사라, 김선민, 김성연, 김성한, 김세일, 김애라, 김윤희/문광선, 김은석/이종연, 김은택, 김재홍, 김점순, 김정미, 김정혁, 김주영, 김진협, 김창주, 김현경, 김현미, 남기윤, 남미자, 노민호, 노진한, 류재일, 문선미, 문혜인, 민영수, 박미영, 박영민, 박태식, 박현경, 박현홍, 배미숙, 백예인, 손혜경, 송혁근/유별, 송현석, 신선원, 신진영, 신화철, 심지연, 안영민, 양애란, 양홍승, 염창근, 오수미, 오승화, 원주신, 윤창현, 윤홍순, 윤희/재원, 이규진, 이동국, 이성영, 이승주/이주아, 이승지, 이승훈, 이영호, 이영화, 이종혁, 이지연, 이충형, 이현우/양미선, 이형우/권승현, 이혜진, 이화정, 임재원, 장원섭, 전소영, 전준웅, 정모세, 정병오, 정재우, 정현연, 조병하, 주한나/이기화, 주혜주, 최강희, 최국진, 최상아, 최효미, 추교선, 탁혜경, 한희준, 함창기, 현간란, 홍종원, 홍현주, 황의성, 황호민	
[교회]	
가나안교회, 가산교회, 고기교회, 과천교회, 군산돌베개교회, 그안에교회, 길음중앙교회, 더불어숲동산교회, 동교동교회, 밝은누리, 사랑숨결교회, 새맘교회, 생명샘교회, 신목교회, 여울교회, 예수마을교회, 예향교회, 오늘교회, 용문교회, 위드교회, 은혜와평화교회, 인천은평교회, 작은예수마을, 장충단교회, 청파교회, 청파청년2부, 한강교회, 함께여는교회, 화천동산교회	
[단체]	
강정친구들, 나무숲세움터, 중미산막국수	
[로 hing야 후원]	[아체 후원]
사랑숨결교회, 용문교회, 은혜와평화교회, 김승민, 박정주/양상, 윤혜성, 조우현, 최수인, 허영정, 허철/김민정	익명 아체(3R), 주병춘

12월에 개척자들과 함께하신 후원자님

[개인]	
강민혁,강세련, 강원옥, 강현식/홍미숙, 고애신, 고혜신, 김기수/조명희, 김기한, 김나경, 김명철, 김미숙, 김미옥, 김백재/이정애, 김사라, 김선민, 김성연, 김세일, 김애라, 김은택, 김의근, 김재홍, 김점순, 김정미, 김정혁, 김주영, 김진협, 김창주, 김현경, 김현미, 김형민, 남기윤, 남미자, 노민호, 노진한, 김윤희/문광선, 김은석/이종연, 문혜인, 박미영, 박영민, 박종민, 박태식, 박현홍, 박현홍, 배미숙, 백예인, 변성유, 손혜경, 송혁근/유별, 신선원, 신진영, 신화철, 심지연, 안영민, 이현우/양미선, 양애란, 염창근, 오성현, 오수미, 오승화, 원주신, 윤창현, 윤홍순, 윤희/재원, 이규진, 이동국, 이성영, 이승주/이주아, 이승지, 이승훈, 이어진겨레, 이영호, 이영화, 이종혁, 이지연, 이충형, 이형우/권승현, 이혜진, 이화정, 임재원, 장원섭, 전소영, 정모세, 정병오, 정연희, 정재우, 정현연, 조광원/최경혜, 조병하, 주한나/이기화, 주혜주, 최강희, 최국진, 최상아, 최지현/박정미, 최효미, 추교선, 탁혜경, 한희준, 현간란, 홍종원, 홍현주, 황숙영, 황의성, 황호민	
[교회]	
가나안교회, 가산교회, 고기교회, 과천교회, 군산돌베개교회, 그안에교회, 길음중앙교회, 더불어숲동산교회, 동교동교회, 밝은누리, 보광중앙교회, 사랑숨결교회, 새맘교회, 생명샘교회, 신목교회, 신산교회, 양주예향교회, 여울교회, 예수마을교회, 용문교회, 위드교회, 은혜와평화교회, 작은예수마을, 장충단교회, 청파교회, 청파청년부, 팔당교회, 한강교회, 함께여는교회, 화천동산교회	
[단체/기업]	
강정친구들, 나무숲세움터, 중미산막국수	
[로 hing야 후원]	[아체 후원]
남북평화재단, 예수마을교회, 은혜와평화교회, 총회사회부, 합천토기장이예배공동체, 김미숙, 김상현, 김유경, 김정훈, 김주철, 김한빛, 김효근, 박성균, 박효정, 심지연, 양은직, 유재미, 윤혜성, 이선화, 장원섭/최효미, 정지원, 최수인, 황영주, 허영정, 익명 2인	익명 아체(3R), 주병춘

운영성과표

(2020기 : 2020-11 ~ 2020-12)
단체명 : 사)개척자들 회계단위 : (전체)

계정과목	합 계	11 월	12 월
사업수익	28,140,700	9,320,000	18,820,700
후원금	28,140,700	9,320,000	18,820,700
일반후원금	18,914,700	7,370,000	11,554,700
개인후원금	3,060,000	890,000	2,170,000
교회후원금	5,590,000	2,510,000	3,080,000
단체후원금	1,120,000	160,000	960,000
기관후원금	9,154,700	3,810,000	5,344,700
목적후원금	9,216,000	1,950,000	7,266,000
목적후원금	9,216,000	1,950,000	7,266,000
사업비용	21,325,096	9,889,436	11,435,660
사업운영비	15,569,998	7,026,106	8,543,892
사업인건비	100,000	100,000	
강사비(사)	100,000	100,000	
사업진행비	15,469,998	6,926,106	8,543,892
여비교통비	163,800	75,300	88,500
홍보비	460,000		460,000
물품구입비	219,300	166,700	52,600
복리후생비	106,600	42,000	64,600
통신우편비	107,640	28,520	79,120
사무용품비	53,500	23,000	30,500
임차료	1,220,000	650,000	570,000
차량유지비	381,333	218,767	162,566
식음료비	1,147,240	675,380	471,860
소모품비	40,000	40,000	
소식지제작비	370,000		370,000
소식지발송비	346,300	346,300	
회의비	192,000	64,500	127,500
운영활동비	10,649,705	4,592,459	6,057,246
지급수수료	12,580	3,180	9,400
관리운영비	5,755,098	2,863,330	2,891,768
인건비	4,400,000	2,500,000	1,900,000
급여(관)	4,400,000	2,500,000	1,900,000
사무관리비	1,355,098	363,330	991,768
복리후생비(관)	117,900	111,000	6,900
통신우편비(관)	173,408	96,190	77,218
지급수수료(관)	385,930	222,150	163,780
차량유지비(관)	508,860	-175,010	683,870
기관후원금(관)	120,000	60,000	60,000
회의비(관)	49,000	49,000	
사업외 수익	11,477		11,477
수입이자	11,477		11,477
당기 순자산의 증(감)	6,827,081	-569,436	7,396,517

SAEMTER

[개척자들-샘터 공동체]

- 12/2~9 연례보고서 작성 & 편집
- 12/3 개척자들 발송 작업 with 선화
- 12/5 샘터 원스톱 구입
- 12/8 샘터 3층 목조부 공증서 송달
- 12/14~22 제주팀 샘터로 와서 연례회의
- 12/17 연례보고서 발송 작업
- 12/21 브라덜 송을 위한 줌 기도회
- 12/24 1차 탄원서 모으기 시작
- 1/3 여울교회와 줌 미팅
- 1/8. 10, 13 2차 탄원서 줌회의
- 1/11 2차 탄원서 모으기 시작
- 1/14 샘터 건축 현황 측량 입회 & 이사회 & 사랑채 수도 녹이기 with 형우
- 1/14 로힝야 난민촌 화재 긴급구호 모금 시작
- 로힝야 RTL 학급 증설지원을 위한 후원 모금 중



ACEH

[개척자들 -아체 공동체]

- 11/28 독서클럽 청소년과 아체 박물관 방문
- 12/7 꿈도서관 문집 출간
- 12/7~10 아체 록스마웨 홍수 긴급구호(물탱크 지원)
- 12/8 Bah, Serempah 파견 꿈 선생님들 복귀
- 12/15 세미나- "타 기관 단체와의 협력이 주는 효과에 대한 고찰"
- 12/22 예전 멤버 아위, 프레자, 시파, 노리가족 모임
- 12/26 쓰나미 16주년 기억 행사 참여
- 1/4~7 사라바루 모니터링
- 1/8 3R 사회적 기업 Green vi 소셜 미디어 개설
- 1/15~25 술라웨시 마누주&마제네 지진 피해 지역 긴급구호



[개척자들-로힝야 난민캠프]

- 11/29 RTS 학교 코로나 방역용 마스크 지급
- 12/8 RTS학교 겨울 외투 선물
- 12/4 로힝야 난민 1500여명 외딴섬으로 강제송환
- 12/15 RYC 의료캠페인 진행. 환자 37명에게 의약품지원
- 12/24 RYC 취약계층 식량지원 8가정
- 12/27 RTL 임신여성 영양지원 11명
- 12/31 RTL 중학교 5,6학년 입학식
- 1/12 RYC 의료캠페인 진행. 환자 40명에게 의약품지원
- 1/14 RYC 나야빠라난민촌 화재발생 3500여명재난민 발생
- 1/16 RYC 긴급구호 후원금 전달
- 1/19 RYC 나야빠라 난민촌 550 가구에 비상식료품키트 배분 완료



[개척자들-제주&공평해]

- 11/24 제2공항 반대 선전전_안덕면
- 11/25 브라더송, 사하자, 아사, 하피 2심 1차공판
- 11/28 난징대학살 관련 좌담회 참석
- 11/30 제2공항 반대 선전전_오설록부근
- 12/13 난징대학살 추모제
- 12/15~16 개척자들 연례회의
- 12/18 이전 멤버들과의 만남
- 12/21 강평 평화활동 연대를 위한 교회들 회의
- 12/23~ 인간띠, 백배 등 일상 평화활동 코로나로 일시중지
- 12/23 브라더송, 사하자, 아사, 하피 2심 2차 공판
- 1/1~14 코로나 자가격리
- 1/3 여울교회 줌모임 참여
- 1/11~20 브라더송 석방을 위한 탄원서명 운동



ROHINGYA

theFRONTIERS

개척자들 / 31

2021년 사)개척자들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할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1년간 인류의 평화를 위한
'평화 복무'의 시간을 갖길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 참여요건 : 18세 이상의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자
- 활동기간 : 활동시작일로 부터 1년
- 활동장소 : 제주 강정마을
- 활동내용 :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활동, 비폭력직접행동, 평화 스터디, 긴급구호활동, 평화캠프, 공동체일상지원활동.
- 지원기간 : 상시모집
- 숙식제공 및 소정의 용돈, 활동시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 문의 : Tel. 031-771-5072 , Email, korea@thefrontiers.org

[개척자들후원방법]

1. 정기후원: 일정금액을 매월 후원하는 방법으로 은행자동이체나 CMS를 이용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2. 일시후원: 자유로운 금액을 원하시는 때에 후원. 다만, 목적후원일 경우 이름 앞에 내용을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건축홍길동, 캠프홍길동, 난민홍길동)

[후원계좌]

1. 소득공제가 필요 없으실 때: 국민 068801-04-014046/ 농협 360-01-047786(예금주: 개척자들)
2.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필수이므로 단체에 연락주세요~)
: 국민 093401-04-124532 예금주: 한빛누리(개척자들)